

중앙회소식

+ 제32차 한국수의정책포럼



주제발표 중인 한국마사회 김광원회장

지난 6월 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수의정책포럼(상임대표 : 박용호, 공동대표 : 곽형근, 배상호, 이주호, 장기윤, 정영채)이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조찬과 함께한 이번 정기포럼에서는 한국마사회 김광원회장의 “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으며 이후 수의축산업과 공중보건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개발에 도움을 주기위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반려동물 Zoonosis 심포지엄



제4회 반려동물 Zoonosis 심포지엄에 참석한 회원들

지난 5월 30일(일) 제4회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심포지엄(Companion Animal Zoonosis Symposium)이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바이엘헬스케어의 동물의학사업부(대표 안드레 글라토) 반려동물사업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개와 고양이의 원충성 장염을 주제로 다뤘으며, 특히 지알디아(Giardia)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신성식 교수의 ‘최세모

편모충에 의한 고양이의 장염’을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명현 교수와 해마루 동물병원 김현욱 원장이 각각 ‘Protozoal Enteritis in Zoonotic View’와 ‘Giardia treatment in practice’을 주제로 편모가 있는 원충성 기생충인 지알디아(Giardia)의 병리 및 증상, 진단, 치료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또한 히데하루 사에키(Hideharu Saeki)박사는 ‘일본의 지알디아 감염 상황과 대책’을 소개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체계화되고 나아가 공중

보건 분야에서의 수의사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부회장이 본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인수공통전염병 측면에서 원충성 질환에 대해 새롭게 알게된 사실들이 많았다는 반응이었으며,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바이엘은 2007년부터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심포지엄을 진행함으로써, 임상수의사들에게 인수공통전염병의 중요성과 관리, 예방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또한 구충 전문회사로써 임상수의사들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기생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동물판매(장묘)업자교육

지난 5월 24일(월) 광주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동물보호법 제17조(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에 의거하여 2010년도 제4차 동물판매(장묘)업자 교육이 우리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전국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의 이해, 판매업자 및 장묘업자가 습득해야할 동물보호, 복지 및 기타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하였다.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등록 후 6개월 이내 6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부 및 산하단체 소식

✦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서울특별시지부>

서울특별시지부, 제4차 수의사연수교육 개최예정

- 일시 : 2010년 6월 20일(일) 10:00~17:30
- 장소 :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223호 강의실
- 주제 : 아토피성 피부질환의 최신 관리방법과 효과적인 치료
- 강사 : Dr. Emmanuel Besignor
- 문의 : 02-953-4050

✦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제14차 전문교육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26일(토) 08:00~18:00, 수의과학회관
- 문의 : 최양규교수(02-2049-6113, yangkyuc@konkuk.ac.kr)

✦ 부산광역시지부, 수의사연수교육 성료

부산광역시수의사회는 지난 5월 6일 롯데호텔에서 2010년도 제1차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 경기도지부, 수의사연수교육 성료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4월 25일과 5월 3일 경기도 수의사회관에서 2010년도 제2차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및 개의 세균성 피부질환에 대한 해외특강을 실시하였다.

✦ 강원도지부, 사무실이전

- 일시 : 2010년 5월 25일
- 장소 : 춘천시 석사동 774-13

✦ 대전·충남 지부 구제역 방역 지원활동 강화



5월 1일 청양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대전·충남수의사회(회장 : 전무형)는 일반 공수의사를 위시하여 공수의를 중심으로 한 임상수의사회원들과 구제역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원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무형 회장은 도와 군에 설치된 방역 상황실을 방문하고 공수의와

임상수의사의 동원에 대비하여 방역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홍성, 연기, 예산, 공주, 부여 등, 시·군 분회에도 지역내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과 이동통제 등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군에 설치된 방역 본부에 야식을 제공하는 등 방역담당 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관련기관 소식

✦ 아세안 국가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방역기술 전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이주호)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아세안 8개국 조류 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방역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과거 3차례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질병을 초기에 근절하고 청정국을 유지하는 등 선진 방역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연합(UN)은 08.06.17일 보도자료 및 언론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범 국가로 발표함에 따라 이번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對) 개도국 무상기술협력사업 중 연수생조청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아세안 8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선발된 20명의 방역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연수과정은 우리나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진단 기술 습득을 위한 이론, 실습과 현장견학을 접목하여 생생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수생들이 실질적인 연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구제역 방역 노하우, 브루셀라 국제표준실험실 및 동축산물 검역검사 제도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의분야에 대해서 교육하며,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질병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연수생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해온 일류 철강산업체인 '포스코'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한 '현대자동차' 견학을 통해서 우리나라 발전 모습을 확인하고, 불국사, 석굴암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2007년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연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방역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참가국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왔으며,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아세안 국가간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구제역 역학조사·분석 결과 중간발표<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난 5월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 김봉환 위원장은 금년 1월 포천·연천 및 4월 강화·김포·충주·청양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원인은 동북아시아 국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농장주의 동북아시아 국가 여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제역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농장과 연관성이 밝혀지는 대로 즉각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방역조치가 지연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신고와 동시에 역학 조사관들이 현장에 즉시 파견되어 발생농장과 연계된 역학관련 농가(총 3,159농가, 5월 12일 기준)를 찾아내고 분석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조치가 진행되었다.

이번 역학조사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종합하여 중간 발표한 것으로 향후 최종 역학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완결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봉환 위원장은 구제역 O형이 동북아(중국, 일본, 몽고, 한국) 지역에 대유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소한 6월말까지 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과 가축사육농가는 지속적인 집중소독과 차단 방역이 필요함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주변국 등 상황으로 볼 때 새로운 바이러스(O형, A형, Asia 1형)의 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당분간 구제역 발생지역에 축산농가의 방문 자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소식

✦ 세계CBVD포럼, 개해충매개질환에 대한 위험성 강조

지난 4월 15일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CBVD포럼에서는 전세계 수의학, 자연과학, 인체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진드기, 벼룩, 흡혈성 모래파리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특히 개)와 사람을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엘 동물약품사업부에 의해 후원되고 있는 세계CBVD포럼은 외부기생충-병원체-숙주 간의 상호작용 및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지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개 해충매개 질환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체와 매개체를 통한 전파에 대해 평가하고 그 예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로 여행할 때는 구충제를 적절히 사용해서 반려동물 관리해야 하며 개 해충매개 질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세계CBVD포럼, 개해충매개질환에 대한 위험성 강조

지난 4월 15일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CBVD포럼에서는 전세계 수의학, 자연과학, 인체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진드기, 벼룩, 흡혈성 모래파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특히 개)과 사람을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엘 동물약품사업부에 의해 후원되고 있는 세계CBVD포럼은 외부기생충-병원체-숙주 간의 상호작용 및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지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개 해충매개 질환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체와 매개체를 통한 전파에 대해 평가하고 그 예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로 여행할 때는 구충제를 적절히 사용해서 반려동물 관리해야 하며 개 해충매개 질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기타소식

✦ 한국화이자 동물약품 사무실 이전

한국화이자동물약품(대표 : 렌스 령 윌리엄스)은 지난 5월 21일 강남역 풍림빌딩(강남구 역삼동 823번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바로 잡습니다

대한수의사회지 제46권 5호(2010년 5월호) 392페이지의 "돼지 콜레라"라는 명칭을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돼지 열병"으로 바로 잡습니다. 